

# 유럽地域工業所有權研修團 귀국

세미나·訪問·見學 통해 結實 풍성



〈南啓榮團長の WIPO 事務次長에게 기념패전달〉

先進外國企業의 特許管理 狀況과 特許制度를 익혀 工業所有權의 國際化에 對備한 知識習得의 契機를 마련하고자 派遣한 本會 유럽地域 工業所有權研修團(團長: 南啓榮)이 14日間의 研修를 마치고 지난 11月 29日 무사히 歸國했다.

지난 11月 16일부터 實施된 이번 研修는 本會 全吉鎬조사부장등 10名으로 구성되었는데 세미나·訪問·

見學등을 통해 지난 어느 海外研修보다도 폭넓은 知識習得으로 特許管理에 큰 힘이 됨은 물론 우리나라 工業所有權의 유럽進出을 가능할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.

訪問日程 및 主要活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本會 유럽地域工業所有權研修團은 11月 18日 오전 프랑스特許協會

를 訪問하여 「프랑스工業所有權制度」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, 오후에는 프랑스特許廳을 訪問하였다.

또 11月 19日에는 프랑스 Thomson社와 C.N. P. F(프랑스 全經聯)를 訪問했다.

同研修團은 또 11月 21日 오전에는 독일特許廳을 訪問했으며, 오후에는 유럽特許廳을 訪問하여 「유럽特許制度」에 관한 두번째 세미나를 가졌다.

또 11月 22日에는 지멘스社와 BMW社를 訪問했다.

이밖에도 11月 25日 오전에는 世界知的的所有權機構(WIPO)를 訪問하여 「世界特許制度」에 대한 세번째 세미나를 가졌으며, 오후에는 스위스工業振興廳을 訪問했다.

同 研修團은 또 11月 26日에는 이태리 特許廳을 訪問했으며, 全 研修期間중 틈틈이 自由見學을 통해 同地域의 新技術情報등을 수집하는 등 풍성한 結實을 거두고 11月 29日 오후 6시 무사히 귀국했다. <14面 관련기사 참고>

## 第57回 化學部門 實務懇談會

「物質特許와 國內産業」등 집중 討議

本會는 지난 12月 6日 오후 2時 催했다.

부터 4時까지 特許廳 研修室에서 特許廳 羅基相유기화학실사담당 第57回 化學部門 實務懇談會를 開관과 金能均심사관을 招請, 同和藥

品 朴種萬課長등 會員企業 專擔要員 24名이 參席한 가운데 열린 이번 懇談會에서는 △ 物質特許와 國內産業(羅基相심사담당관)과 △ 特許出願面에서 본 化學部門技術動向(金能均심사관)에 대한 講義에 이어 이에대한 質疑·應答의 順으로 진행되었다. <우>